

차우철 롯데GRS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차우철 롯데GRS 대표가 27일 '어린이 교통 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차 대표는 교통안전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촬영한 인증샷을 롯데리아 공식 SNS에 게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 문화 확산을 기원했다.



“아낌없는 헌신” 현대차그룹의 37년 양궁 사랑

한국양궁 금메달 뒤엔 현대차 혁신기술 있었다

선수들 니즈 반영... 지원방안 논의
인공지능 비전인식 3D프린팅 활용
고정밀 슈팅머신·맞춤형 그립 등
자사 신기술 적용한 첨단장비 지원

‘목표는 도쿄 올림픽 석권, 5대 혁신 기술로 경기력 끌어올려라’.

한국 양궁 선수단이 도쿄 올림픽에서 올해 신설된 혼성단체전 첫 금메달에 이어 여자 단체전 9연패, 남자 단체전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 브라질 리우대회 직후부터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다양한 기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선수들의 니즈를 반영해 그룹이 가진 R&D 기술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검토했다. AI(인공지능), 비전 인식, 3D 프린팅 등 현대차그룹이 가진 첨단 신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했고, 이를 통해 탄생한 5대 혁신 기술이 양궁 훈련에 접목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양궁에 적용한 현대차의 5대 혁신기술

한국 양궁 선수단은 이미 세계 최강의 양궁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를 더 완벽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R&D 기술을 총동원했다.

5대 첨단 기술은 ▲최상 품질의 화살을 선별하는 장비인 ‘고정밀 슈팅머신’ ▲점수를 자동으로 판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점수 자동기록 장치’ ▲비접촉 방식으로 선수들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 ▲선수 훈련 영상 분석을 위한 자동편집 장비인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3D 프린터로 선수의 손에 최적화해 제작한 ‘맞춤형 그립’ 등이다. 각각의 세부 기술 내용을 보면 현대차가 양궁 발전을 위해 쏟은 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영상을 실전용 분석을 위해 자동 편집해 주는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70m 거리에서 슈팅머신으로 화살을 쏘아 신규 화살의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고정밀 슈팅 머신, 정밀 센서 기반의 '전자 과녁'을 적용해 점수를 자동으로 판독하고 저장하는 점수 자동 기록 장치, 3D 프린팅을 활용한 선수 맞춤형 그립(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① 고정밀 슈팅 머신

양궁에서 화살은 활과 함께 최상의 성적을 내기 위한 핵심 장비다. 선수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자신에게 맞는 화살을 선별하기 위해 직접 활시위를 당기며 화살을 테스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양궁협회가 협의해 제작한 기기가 ‘슈팅머신’이다. 슈팅머신을 사용하면 힘, 방향, 속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가 가능해 더 정확한 화살 분류가 가능하다. 더불어 화살의 허리(스파인·Spine)와 중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화살을 믿을 수 있어 심리적인 자신감을 얻는 효과도 됐다.

② 점수 자동 기록 장치

정밀 센서 기반의 ‘전자 과녁’을 적용해 점수를 자동으로 판독하고 저장하는 기술인 점수 자동 기록 장치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

점수와 탄착 위치 데이터가 전체 훈련

데이터 센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을 갖춰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선수의 발사 영상, 심박수 정보 등과 연계해 선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점검하고 지도하는데 활용됐다.

③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

한국 양궁선수들의 놀라운 평정심 유지에 기여한 장비는 비전(Vision)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다.

심박수는 선수들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다.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는 선수 얼굴의 미세한 색상 변화를 감지해 맥파를 검출하고 심박수를 측정한다. 코칭 스태프는 훈련 과정에서 측정한 선수의 심박수 정보와 점수 데이터를 연계해 선수의 심리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데 활용했다.

④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현대차그룹은 자사 인공지능 전문 조

직 에어스(AIRS) 컴퍼니가 보유한 ‘AI 딥러닝 비전 기술’을 활용해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실전을 위한 분석에 용이하도록 자동 편집해 주는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를 개발했다. 선수와 코치는 최적화된 편집 영상을 통해 평소 습관이나 취약점을 집중 분석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⑤ 맞춤형 그립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그립도 경기력 향상의 일등공신이다. 현대차그룹은 3D 스캐너 및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선수의 손에 꼭 맞는 맞춤형 그립을 제작해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대회를 대비해 알루미늄, PA12 등 신소재를 활용해 그립 재질을 다양화했다. 알루미늄 그립은 가볍고 미끄러짐이 거의 없어 선수들이 선호했다는 후문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풍산화동양행 ‘도쿄올림픽 기념주화’ 판매 총 4종 발행...8월6일까지 선착순 주문 접수

풍산화동양행이 제32회 도쿄올림픽 2020 공식 기념주화를 판매한다. 이번 공식기념주화는 국제적 희소성으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발행 당시 일본 현지에선 전량 매진됐다. 대회 연기로 기념주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수집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도쿄올림픽 개최 연장에 따라 출시가 연기됐다가,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으로 기념주화를 출시하게 됐다.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당초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기됐다. 이번 기념주화는 올림픽 최초로 기념주화가 출시된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 이후 사상 처음 연기된 올림픽의 공식 기념주화로 기록됐다. 역대 최소년 올림픽은 총3회로, 모두 전쟁의 여파였다.

이번에 출시된 기념주화는 ‘프리미엄 프루프 37종 전화종 세트’, ‘금화’, ‘은화 6종 세트’, ‘동화 22종 전화종 세트’ 총 4가지 구성이다. 프리미엄 프루프 37종 전화종세트는 1210만 원으로 국내 배정수량은 25세트다. 금화는 187만 원이며, 수량은 500장이다. 은화 6종세트는 88만 원으로 1000세트, 동화 22종 전화종 세트는 15만4000원으로 2000세트다.

기념주화 IOC 공식판매권자인 풍산화동양행의 이재철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판매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기념주화가 귀하게 된 사례처럼 이번 도쿄올림픽 기념주화는 국제적으로 매우 귀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화종 37종 세트는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매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주화는 8월 6일까지 시중 금융기관 전국 지점, 전국 우체국, 공식판매권자인 풍산화동양행에서 선착순으로 주문 접수를 받는다. 김병근 기자

GKL, 하반기 공익사업 연말까지 진행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공익사업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GKL,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민간(디스플레이)이 협업하는 사업인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부산시 부산진구 호천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 서울 중구에 거주 중인 신중년(40~60대)을 대상으로 한 ‘중구형 스마트케어 일자리 발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총 지원금액은 1억4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자생의료재단, ‘서울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동참

자생의료재단이 27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우리서울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문제를 대비하는 대국민 나눔활동이다. 이날 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방역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600여 명분의 코로나19 자가진단 힐링박스 제작에 쓰인다. 힐링박스에는 코로나19 자가진단도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담았다.

한국 양궁 전폭 지원한 정몽구·정의선

정의선, 선수 육성·협회 안정화 추진
정 명예회장, 체계적 양궁 기틀 마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0 도쿄 올림픽 현장을 찾아 한국 양궁 대표팀을 응원했다. 25일 여자 단체전과 26일 남자 단체전 현장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정 회장은 미국출장 귀국길에 일본 도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양궁은 1984년 LA올림픽부터 이번 도쿄 올림픽 남자단체전까지 총 26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땀다.

정 회장은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저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 2008년에는 양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한국 양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기 13년에 걸친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유소년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일선 초등학교 양궁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 지원해왔고, 2013년에는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 양궁대회’를 개최하며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 회장은 한국 대표 공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도 펼쳐왔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경기장과 숙소가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경기장 인근 호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는 경기장 인근에 선수들이 쉴 수 있는 트레일러를



25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왼쪽 사진 오른쪽)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념만찬에서 양궁 대표팀을 격려하고 있는 정몽구 명예회장. 뉴스·현대차그룹

마련하고, 안전을 위해 방탄차를 제공했다. 또 대회 기간 경기장 인근 식당을 빌리고, 한식 조리사를 초빙하기도 했다.

현대차와 양궁의 인연은 정몽구 명예회장 때부터 시작했다. 1984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사장이었던 정 명예회장은 LA대회 양궁여자 개인전의 금빛 드라마를 지켜본 뒤 양궁 육성을 결심하고, 이듬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현대정공에 여자 양궁단을,

현대제철에 남자 양궁단을 창단했다.

정 명예회장은 체육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과학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스포츠 과학기재 도입과 연구개발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 장비에 대한 품질을 직접 점검하고, 개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 양궁인들이 한국산 장비를 가장 선호하게 된 계기가 됐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